

말씀의 효능

(시 119:9-11)

박 희 천

(서울 내수동 교회 담임목사)

<요약>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 생활에 어떠한 효능을 주는가?

1. 범죄치 않게 한다

시 119:9에, 청년이 주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케 할 수 있는 고로, 11절엔 범죄치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였다.

시 17:3-5에, 주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할지라도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던 까닭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.

시 18:20-22에,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을 만큼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말씀을 지킨 연고요, 시 37:29-31에도 의인은 그 마음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.

요- 3:9에,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(눅 8:11)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.

신 17:18-20에는 왕이 가장 짓기 쉬운 교만한 죄를 안 지으려면 율법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. 딤후 6:3-5에, 여러 가지 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 생긴다고 한다.

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(딤후 3:16-17) 경계함을 받고(시 19:11) 캄캄한 세상을 말씀의 등불로 한걸음씩 비추고 걸어(시 119:105) 범죄하지 않게 된다. 말 1:8의 때에 신 17:1을, 왕상 11:1-31 때에 신 17:17의 말씀을 기억했다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.

2. 위로와 희락과 소망을 준다

환난 많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슬피 우는 성도들을 위로하고, 즐거움을 주고, 기쁘게 하여 삶의 소망을 준다.

시 119:50에는 고난 중에서 삶의 욕망을 잃어버려 절망했던 성도가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 살려 주었다고 하였고, 시 119:92에는 멸망을 면치 못할 무서운 고난을 겪는 성도에게 즐거움을 주어 멸망을 면케 했다고 하였고, 시 119:143에는 환난과 우환 속에 끼어있는 성도에게 즐거움을 주었다고 하였다.

시 19:8에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였고, 렘 15:4에는 고난을 겪는(렘 20:14-18) 예레미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고 하였고, 롬 15:4에는

성경은 우리를 안위하여 삶의 소망을 준다고 하였다.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(시 119:24) 진토에 붙어(시 119:25) 고난이 막심한(시 119:107) 자기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소성시켜 달라고 하였다.

3.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

시 119:98-100에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보다, 스승보다, 지혜 많은 노인들보다(욘 12:12, 32:7) 더 지혜롭게 한다고 하였다.

시 19:7에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, 잠 1:4-5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에게 다 지혜를 준다고 하였다.

스 7:14에는 에스라의 손에 율법책이 있는데 그 율법책을 스 7:25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고, 신 4:6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된다고 하였으며, 램 8:9에는 여호와의 말을 버린 자에게서는 지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.

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? 그 말씀은 바로 지혜로도, 명철로도, 모략으로도 당해낼 수 없는 여호와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(잠 21:30).

4.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한다

행 20:32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하였고, 롬 16:26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데 복음의 말씀을 재료로 써서 견고케 하셨고,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신고로 그 분의 방법에 실패가 없을 것을 말씀하셨다. 롬 10:17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난다고 하였다.

목회하는 경험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사실에 대하여 놀란 적이 많다. 앞서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은 세례 받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100 번 읽고 세례 받았고, 길선주 목사님은 구약과 신약을 수백 번 읽었고, 최원초 목사님은 빌립보서를 3천 번, 계시록을 1만 번이나 읽으셨다.

5. 육체의 건강까지 준다

잠 4:22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을 준다고 하였다. 육체의 건강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(시 31:9, 잠 17:22, 16:24) 하나님의 말씀은 몸에 양약이 되는 마음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체의 건강을 줄 수 있다.

결론 : 우리 성도들은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의 효능으로 위의 다섯 가지 축복에 이르자.